

청소년의 성취목표지향성과 불안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윤선희* · 이규민**

초 록

이 연구는 청소년의 성취목표지향과 불안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고등학교 1, 2학년생 총 463명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고, 상관분석, 구조방정식모형 분석 방법이 사용되었다. 상관분석 결과로 성취목표지향성과 불안과의 관계에서는 수행접근, 수행회피, 숙달회피가 특성불안, 상태불안과 정적인 상관을 보였고, 숙달접근은 특성불안, 상태불안과 부적인 상관을 보였다. 성취목표지향성과 진로결정수준 사이의 관계 분석결과 수행회피와 숙달회피는 진로결정수준과 부적인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상태불안과 특성불안은 진로결정수준과 부적인 상관을 보였다. 세 가지 주요 변인간의 관계로는 성취목표지향성 중 두 가지 회피지향성(수행회피와 숙달회피)이 불안을 매개로 하여 진로결정수준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완전 매개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주제어 : 진로결정수준, 성취목표지향성, 불안

* 한국심리검사연구소 연구원, 010-2316-6291

** 연세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02-2123-3183

I. 서 론

진로는 한 개인의 인생을 결정하게 되는 중요한 요인이다. 우리가 어떤 직업과 진로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능력발휘의 기회, 인간관계,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가치관과 태도, 정신 및 신체적 건강 등 모든 측면의 삶의 영역에 걸쳐 영향을 받게 된다. 특히 고등학교 시기는 장차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보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각종 정보수집과 함께 진로를 설계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고등학생의 진로발달의 특징으로, Ginzberg는 고등학교 시기를 시험적 직업선택 단계(tentative period, 11-17세)에 속한다고 보았다. Super는 이 시기는 탐색기(exploration stage, 15-24세) 중 잠정기(tentative substage, 15-17세)에 포함되며, 잠정기는 개인이 욕구, 흥미, 능력, 가치, 직업적 기회 등을 고려하기 시작하며, 잠정적인 진로를 선택하고 그것을 환상, 토의, 일, 기타 경험을 통해서 시행해 본다고 하였다(김봉환 외, 2006 재인용). 우리나라의 7차 교육과정에서도 고등학교의 교육목표는 학생의 적성과 소질에 맞는 진로개척능력과 세계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는 데 중점을 둔다고 밝혀(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7), 고등학생 진로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상당수의 대학 신입생들이 진로문제에 고민하고 있는 현실은 고등학교에서 해야 할 진로결정을 유보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일례로 연세대학교의 신입생 실태 조사에 따르면 32%의 학생들이 자신의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있으며, 당분간 자신의 진로결정을 보류하고 싶다고 응답한 학생이 2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연세대학교 상담센터, 2007). 서울대학교(2002)의 경우도 절반 이상의 신입생들은 진로상담을 받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하였고, 가장 참여하고 싶은 프로그램도 진로결정을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응답하였다(서울대학교 대학생활문화원, 2002). 이러한 사실은 많은 대학생들이 대학교에 입학하기 전 단계인 고등학교에서부터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진로결정에 대한 준비가 미흡함을 의미한다.

진로결정에 관련된 변인들을 살펴보면, 불안(O'Hare · Tamburri, 1986), 통제 의 소재(Hartman · Fuqua, 1982), 진로의사결정 자기효능감(Lent 외, 1986)등이 주로 연구되고 있다. 정윤경(2000)은 고등학생의 진로미결정의 유형을 분류하는 연구에서,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는 요인으로 자기 및 직업에 대한 정보 부족, 자신감 부족, 불안, 진로

결정에 대한 관심 부족 등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진로결정에는 어느 하나의 요인이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출생에서부터 개인적, 사회경제적 환경, 심리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불안은 이러한 다양한 진로결정수준과 관련된 개인의 성격 특성 중 중요한 임이 밝혀지고 있다(김관환, 1997). 따라서 우리나라 청소년의 진로결정수준에도 불안이 영향력 있는 변인으로 작용하는지 또, 이러한 불안을 일으키는 요인은 무엇인지를 살펴봄으로써 진로결정에 영향을 주는 불안을 경감시킬 수 있는 단서를 마련하여 효과적인 진로상담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고등학생은 각자의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진로결정 대신에 입시라는 일률적인 목표를 위해 학업에 매진해야 할 정도로 학업은 청소년의 생활에서 비중이 큰 현실이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일주일에 공부하는 시간은 49.43 시간으로 OECD 평균(33.92시간)에 비해 15시간이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조선닷컴, 2009). 이러한 사실을 볼 때 학업 관련 심리적 변인은 청소년의 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실제로 학업에 대한 동기인 성취목표지향성이 불안과 같은 감정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가 있다. Sideridis(2005)는 목표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는 감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다시 말해 무엇을 위해서 학업에 임하는지 여부는 불안과 같은 감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주관적 안녕은 목표를 성취하는 것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얻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의 내용에 의해 더욱 영향을 받는다는 결과(Emmons, 1996)는 학업에 대한 직접적인 결과보다는 학업의 목표를 어느 방향으로 지향하느냐에 따라 불안 등의 감정이 야기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의 학업에 대한 성취목표지향성, 그리고 불안이 진로결정수준에 서로 어떤 영향을 주는지 밝히는 것이다. 청소년의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밝혀 인생을 좌우하는 선택인 청소년의 진로 결정을 효과적으로 조력할 수 있는 진로상담에 대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진로결정수준

‘진로결정수준(Career Decision Level)’이란 자신의 전공선택 및 직업선택과 관련한 진로결정과정에서 나타나는 진행수준과 장래의 진로에 대한 확고한 정도를 일컫는 것으로 이는 곧 진로미결정수준을 의미하기도 한다(Crites, 1981). 진로결정이란 바람직한 진로교육을 통해 진로설계와 계획이 장기간에 걸쳐 진로발달로 이루어진 결과로, 진로를 결정해야 할 결정적 시기에 합리적으로 진로를 결정할 수 있게 된 상태를 의미한다(Walsh · Osipow, 1988).

김봉환(1997)은 ‘진로를 결정했다’함은 일반적으로 현재 상태 이후에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방향을 분명히 설정했음을 의미하며, 보다 구체적으로는 대학에서의 전공 선택에 대한 확신 혹은 졸업 후에 자기가 종사할 구체적인 직업분야의 선택을 뜻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청소년에게 진로결정이란 진학이나 직업 선택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진로선택에 대한 확실한 결정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진로 미결정이란 개인이 학습과 자아형성의 결과로 발달해나가는 과정 중에서 지금 자신의 위치에서 다음 단계로의 진로발달을 위한 의사결정이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못함을 의미한다(박종원, 2002).

진로결정과 관련된 연구가 축적된 지금에는 진로결정이라는 구성개념이 결정 대 미결정으로 이루어진 이분법적인 변인으로 보는 것이 부적합하다는 것을 인식하여 진로결정과 미결정을 연속적인 차원으로 보고 있다(Larson 외, 1988). 그러므로 진로결정수준은 학생들이 향후 자신의 진로에 대한 확신의 정도로서 진로미결정과 확고한 진로결정을 양극단으로 하는 연속선상의 어느 한 지점을 지칭하는 것으로 정의한다고 볼 수 있다(김현수 외, 2004).

2. 불안

불안이란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근심, 걱정, 긴장으로 특징 지워지는 불쾌한 정서를

경험하는 주관적, 자의적 상태이다. 불안은 상태불안(state anxiety)과 특성불안(trait anxiety)으로 분류되는데, 상태불안은 긴장감, 염려, 그리고 과도한 자율신경계 활동으로 특징 지워지는 일시적인 정서 상태이다. 특성불안은 불안을 경험하는 빈도에 있어서 비교적 안정적인 개인차가 있으며 상황을 위협적으로 지각하는 비교적 영속적인 성격적 경향성이다(Spielberger, 1972).

불안은 사람들마다 서로 다르게 경험하지만 불안한 사람에게는 정서적, 신체적, 인지적으로 세 가지 현상이 발견된다(Maher, 1996). 첫째는 두려움이나 위협에 관한 느낌으로, 이러한 느낌을 설명할 수 있는 객관적 능력이 없는 상태이다. 둘째, 생리적 각성과 신체적 고통의 양식으로, 심장혈관, 호흡기 등 신체적 증상이다. 셋째, 효과적인 문제해결과 인지적 통제의 붕괴 또는 혼란으로, 직면한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포함된다. 특히 인지적인 현상은 개인에 따라서 짧은 시간 나타나기도 하고 오랫동안 지속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주의를 방해한다. 즉, 일반적인 불안은 인지과정을 방해하고 기억력과 적극성을 약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3. 성취목표지향성

성취목표지향성이란 학습자들이 학습활동에 어떻게 접근하고 참여하는지를 결정하는 일련의 행동적 의도(Meece 외, 1988) 또는 학습자가 어떤 목표를 채택하면서 생기는 유입 정보 처리에 대한 일련의 관심이나 준거(Dweck, 1986)로서, 성취지향적인 행동의 인지적 측면과 정의적 측면을 통합하여 인지과정을 동기화시키는 중요한 요소이다(Ames, 1992).

성취목표이론(achievement goal theory) 혹은 목표지향성이론(goal-orientation theory)은 지난 20년여 년 이상동안 성취목표지향성에 관한 연구에서 하나의 이론적 틀이 되어왔을 뿐 아니라 최근에 와서 특히 주목을 받으며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성취목표이론은 한 개인이 동기가 있는가 없는가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이 과제를 수행하는 이유와 의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초점을 맞춘다(Ames, 1992). 이 이론은 인간의 성취행동 중에서도 특히 학교장면의 학업관련 과제에 있어서의 학생의 학습과 수행을 설명하기 위해 발달심리학자, 동기심리학자, 교

육심리학자들에 의해 개발되어 온 것으로(Pintrich · Schunk, 2002), 학습자가 어떠한 이유로 과제에 참여하는가에 직접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이론이다. 성취목표지향성은 개념은 숙달목표와 수행목표로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점차 세분화 되는 방향으로 발달하였다.

성취목표지향성의 최근 모델은 2×2 성취목표지향성 모델로 성취목표지향성은 유능성을 정의하는 방식(수행/숙달)과 능력에 대해 가치평가 하는 방식(접근/회피), 이 두 가지 기준으로 나누는 것이다. 수행목표는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개인의 유능성을 정의하는 것을 말하며, 숙달목표는 과제 자체나 개인의 과거 수행을 기준으로 개인의 유능성을 정의하는 성향을 말한다. 이러한 각 목표는 성공에 대한 접근 또는 실패에 대한 회피성향에 따라 수행접근, 수행회피, 숙달접근, 숙달회피의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김아영 · 이주화, 2005). 수행접근은 타인과의 상대적인 유능성을 획득하려는 목표인 반면, 수행회피는 상대적인 무능력을 회피하려는 목표이다. 숙달접근은 과제의 숙달이나 능력의 발전을 달성하려는 목표이지만, 숙달회피는 자신의 능력이 감소하거나 숙달이나 학습에 실패할 부정적인 가능성을 회피하려는 목표이다.

4. 성취목표지향성, 불안, 진로결정수준의 관계

진로결정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관련되는데, 이 중 불안은 만성적인 미 결정자를 확인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Fuqua · Hartman, 1983). O'Hare와 Tamburri(1986)도 불안과 진로결정에 대해 개인들이 취하는 다양한 형태의 대응행위의 역할 고찰을 통해, 불안과 진로결정 간에 유의한 관계가 있음이 밝혔다. 이들의 연구에서 진로결정에 거의 진전이 없는 학생들은 높은 수준의 특성불안 및 상태불안을 소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목표나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것도 매우 부족하다고 보고하였다. 김관환(1997)의 연구에서도 불안이 진로의사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연구에 따르면 진로선택에 거의 진전이 없는 학생들은 높은 수준의 상태불안을 소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목표나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능력도 매우 부족하였다.

불안은 인지과정을 방해하고 이는 의사결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진로결

정과 높은 관련성이 있음이 밝혀지고 있다(Hawkins, 2004). Greenhaus와 Sklarew (1981)는 불안 수준이 높은 사람은 정보를 왜곡하거나 잘못 해석하는 경향이 있고 또 이들은 직업탐색이 유용하지 않다고 믿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부가적인 탐색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보고하였다.

하지만 최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불안과 진로결정 간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연구결과도 있었다. 정윤경(2002)은 선행연구의 주장과 달리 불안정도가 진로결정수준에 약한 부정적 효과를 나타냈으며, 이점에 대해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어 다른 고등학생 집단에게 조사를 실시하여 불안과 진로결정수준에 대한 관계를 설명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리라고 제언했다.

성취목표지향성 중 수행회피와 불안은 정적인 관계가 있다는 연구가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2×2 모델의 전 단계인 삼분법적 모델(숙달접근, 숙달회피, 수행접근) 즉, 숙달회피 요인이 없는 구조로 성취목표지향성과 불안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Elliot와 Thrash(2002)는 동기체제를 접근적 기질(approach temperament)인 행동활성화체계(behavioral activation system: 이하 BAS)와 회피적 기질(avoidance temperament)인 행동억제체계(behavioral inhibition system: 이하 BIS)로 분리하면서, 이중 BIS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상황에 직면할 때 더 큰 불안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BIS는 회피기질의 성향을 가지며 이는 수행회피목표와 정적인 상관이 있었다. 즉, 세 가지 성취목표지향성 중 수행회피목표는 불안을 경험할 가능성을 높인다.

숙달회피 요인과 불안과의 관계는 최근 숙달회피 요인이 성취목표지향성 모델에 추가되면서 보고되기 시작했다. 박선영(2005)은 성취목표지향성과 성격 및 학업성취간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 수행회피와 숙달회피는 신경성 요인과 상관을 보였고, 이는 목표지향성에서 회피지향성의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 기반을 두고 있는 성향과 성격요인의 신경증의 경향 즉, 심리적 안정감을 잘 유지하지 못하고 불안해하는 특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성미송(2005)도 2×2 목표지향성 구조 중 수행회피와 숙달회피가 불안을 경험하게 하는 회피적 기질인 BIS와 유의한 정적인 관계를 지녔다는 보고를 했다. 이는 수행회피와 숙달회피가 높으면 불안을 보일 가능성 또한 높다는 것을 말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이 연구의 대상은 서울 시내 소재 4곳의 학교의 남녀 고등학교 1, 2학년생 463명이다. 각 학교별로 교무부장과 학년부장 교사들에게 협조를 구하여 협조 요청을 수락한 교사에게 총 620부의 설문지를 전달하였으며, 이 설문지는 학급 담임 교사들에게 전달되어 학생들에게 실시되었다. 이중 회수된 설문지는 598부 이고,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을 제외하고 총 463부의 설문지가 연구 분석에 사용되었다. 검사는 진로결정검사 16문항, 성취목표지향성 척도 20문항, 특성불안과 상태불안검사 각 20문항으로 총 76문항을 실시하는데 검사 소요시간은 약 20분 정도였다.

2. 측정도구

1) 진로결정수준

진로결정수준의 측정도구로는 Osipow등(1980)이 개발한 진로결정검사(Career Decision Scale: CDS)를 고향자(1992)가 변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원래 대학생을 검사대象으로 타당화 되었으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여도 응답에 어려움이 없었고, 신뢰도에도 차이가 없다는 선행연구(문승태·김연희, 2002)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했다. 이 척도의 하위요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견이 있고 본 척도의 개발자인 Osipow(1994)도 하나의 요인, 즉 미결정만을 측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제시하였으므로 본 연구에서도 이 척도를 단일 요인으로 보았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16개의 문항은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가 더 미결정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주제인 ‘진로결정수준’이라는 취지에 맞춰서 조애리(1999)의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역채점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 α 는 .86이었다.

2) 불안

불안 측정 도구는 Spielberg등(1970)이 개발한 상태-특성불안 검사(State-Trait Anxiety Inventory: STAI)를 한덕웅, 이창호와 탁진국(1993)이 표준화한 검사를 사용하였다. 상태-특성불안 검사는 상태불안 20문항, 특성불안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불안도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 특성불안의 Cronbach α 값은 .85, 상태불안의 Cronbach α 는 .89 였으며, 전체 신뢰도는 .93 이었다.

3) 성취목표지향성

성취목표지향성 측정 도구는 김아영과 이주화(2005)에 의해 타당화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Elliot와 McGregor(2001)가 제시한 2×2 성취목표지향성이론에 기초하여 선행연구들에 사용된 문항들을 참고로 네 개의 하위 요인에 해당하는 문항들을 구성하여 우리나라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타당화한 검사이다. 성취목표지향성 척도는 수행접근 5문항, 수행회피 5문항, 숙달접근 5문항, 숙달회피 5문항으로 총 20문항으로 되어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하는 목표지향성의 성향을 많이 보이는 것을 뜻한다. 이 연구에서 확인된 신뢰도는 수행접근이 .80, 수행회피가 .70, 숙달접근이 .75, 숙달회피가 .78 였다.

3. 분석방법

주요 변인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상관분석이 실시되었고, 성취목표지향성과 진로결정수준간 관계에서 불안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AMOS 7.0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구조모형 검증을 수행하였다. 즉 불안, 진로결정수준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는 성취목표지향성의 하위요인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로 구조모형 검증을 수행했다. 첫째, 독립변인(성취목표지향성)이 종속변인(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분석하고 둘째,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사이에 매개변인(불안)을 삽입한 영향 분석한 후 셋째, 앞의 두 모형을 비교하여 성취목표지향성과 진로결정수준 사이에서의 불안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구조방정식 모델에서 잠재변인은 그 변인을 측정하는 측정변인들로 구성이 된다. 진로결정수준은 하나의 요인으로 구성된 척도를 토대로 하나의 측정치가 산출되었다. 그러나 잠재변인은 한 개 이상의 측정변인으로 구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Russell 등(1998)의 제안에 따라 하나의 요인으로 구성된 척도를 문항묶음(item parceling)하여 2개의 점수(진로1, 진로2)로 나누었고, 그것들을 각 잠재변인의 측정으로 삼아 분석하였다. 문항 묶음(item parceling)이란 각 척도별로 요인분석하여 문항 부하량을 토대로 문항들을 2개 내지는 3개로 집단화하는 것으로, 구조 방정식 모형 검증을 위한 잠재변인을 산출하는데 활용되는 절차이다(Russell et. al., 1998).

IV. 연구결과

1. 성취목표지향성, 불안, 진로결정수준 간의 관계

수행목표 지향성의 하위차원인 수행접근, 수행회피, 숙달목표 지향성의 하위차원인 숙달접근, 숙달회피, 불안의 하위차원인 특성불안, 상태불안과 진로결정수준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상관분석 결과는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표 1> 이 연구에서 사용된 주요 변인들 간 상관관계

	수행접근	수행회피	숙달접근	숙달회피	특성불안	상태불안
수행회피	.312***					
숙달접근	.283***	-.095*				
숙달회피	.375***	.421***	.293***			
특성불안	.190***	.347***	-.145**	.232***		
상태불안	.159**	.404***	-.202***	.286***	.802***	
진로결정수준	-0.091	-.162***	0.085	-.152**	-.274***	-.393***

* $p < .05$, ** $p < .01$, *** $p < .001$

상관분석 결과, 수행접근은 수행회피, 숙달접근, 숙달회피, 특성불안, 상태불안과 정적인 상관을 보였으나, 진로결정수준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수행회피는 숙달회피, 특성불안, 상태불안과 정적인 상관을 보였으며, 숙달접근, 진로결정수준과는 부적인 상관을 나타냈다. 숙달접근은 숙달회피와 정적인 상관을 보였으며, 특성불안, 상태불안과는 부적인 상관을 나타냈다. 숙달회피는 특성불안, 상태불안과 정적인 상관을 보였으며, 진로결정수준과는 부적인 상관을 나타냈다. 또한, 특성불안은 상태불안과 정적인 상관을 보였으며, 진로결정수준과는 부적인 상관을 나타냈고, 상태불안은 진로결정수준과 부적인 상관을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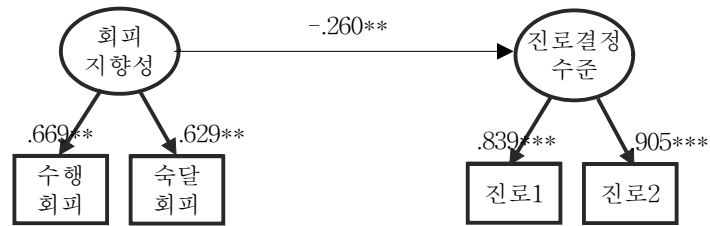
2. 성취목표지향성, 불안, 진로결정수준의 구조모형

앞의 상관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진로결정수준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이 있는 수행회피와 숙달회피를 회피지향성 변수로 지정하고, 회피지향성이 불안을 매개로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주는지 검증하기 위해 다음의 구조모형 분석을 수행하였다. 즉, 회피지향성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과 회피지향성이 불안을 매개로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비교하였다. 회피지향성과 진로결정수준 간의 관계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는 표 2에 제시되어있고, 구조모형과 추정된 계수는 그림 1과 같다. 진로1과 진로2 변수는 진로결정수준 이론 변수를 측정하기 위해 여러 개의 측정 문항을 묶어 구성된 측정변수로 이해될 수 있다.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Tucker Lewis Index(TLI), Comparative Fit Index(CFI), Root Mean Square Error or Approximation(RMSEA)를 적합도 지수로 사용하였다. 적합도 지수의 기준은 TLI와 CFI는 대략 .90 이상이면 모형의 적합도가 좋은 것으로 간주된다(홍세희, 2000). RMSEA 값은 .05 이하이면 좋은 모형, .08 이하이면 적절한 모형, .10 이하이면 보통 수준을 의미한다(Browne & Cudeck, 1993). 표 2에 제시된 지수들을 보면 TLI, CFI, RMSEA 모두 좋은 적합도를 시사한다. 이와 함께 그림 1에서 제시되어 있는 것처럼, 각 잠재변인을 설명하고 있는 측정변인의 요인 값들은 모두 유의미하였다.

<표 2> 회피지향성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분석 모형

	χ^2	TLI	AGFI	CFI	RMSEA
구조모형	0.009 (df=1)	1.012	1.000	1.000	.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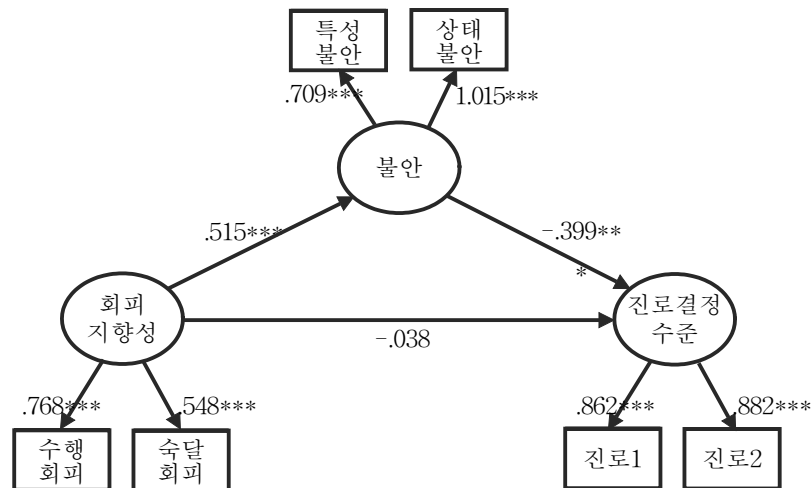


[그림 1] 회피지향성과 진로결정수준 간의 구조방정식 모형

회피지향성과 진로결정수준 간의 관계에서 불안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매개모형의 적합도는 표 3에 제시되어있고, 구조모형과 추정된 경로계수는 그림 2에 제시하였다.

<표 3> 회피지향성과 진로결정수준의 관계에서 불안의 매개효과 분석 모형

	χ^2	TLI	AGFI	CFI	RMSEA
구조모형	4.356 (df=7)	1.004	.989	1.000	.000



[그림 2] 회피지향성, 불안, 진로결정수준의 구조방정식 모형

그림 2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회피지향성과 진로결정수준 간의 관계는 불안에 의해서 유의미하게 매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피지향성은 불안과 정적인 관계를 보였고, 회피지향성은 불안을 증가시킴으로써 진로결정수준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과 그림 2에 제시된 구조방정식 모형은 표 2와 표 3의 모형 적합도 지수를 고려하면, 두 모형 모두 적합도가 있는 모형으로 평가된다. 이 연구에서는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통해, 구체적인 설명 모형을 도출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 아닌 두 모형을 비교하여 회피지향성과 진로결정수준 사이의 관계에 불안이 어떻게 매개 효과 변인으로 작용하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두 모형을 비교해 보면, 그림 1 모형에서는 진로결정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불안이 변인을 매개 변인으로 고려한 그림 2 모형에서는 회피지향성이 진로결정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회피지향성은 진로결정수준과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이해되기 보다는 불안을 매개변인으로 하여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주는 완전 매개 모형을 확인할 수 있었다.

V.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청소년의 성취목표지향성과 불안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주요변인의 하위요인간의 상관 결과로 성취목표지향성과 불안간의 관계를 보면, 수행접근, 수행회피, 숙달회피는 불안과 정적인 상관을 보였고, 숙달접근만이 불안과 부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수행회피와 숙달회피와 같이 타인에 대한 비교를 통해 자신의 능력을 정의하는 태도보다는 학습과정 그 자체에 가치를 부여하는 숙달접근이 정서적으로 더 건강한 학습동기임을 말한다. 또한 실패에 대한 회피로 능력에 대해 가치 평가하는 수행회피나 숙달회피 보다 성공에 대한 접근을 중시하는 학습동기가 더 안정적인 정서와 관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즉, 청소년의 성취목표지향성과 불안은 관계가 있는데, 그 중 숙달접근은 불안과 부적인 관계가 있으므로 외적 보상보다는 자

신의 유능함을 개발하는 것에 가치를 두는 동기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이외에 성취목표지향성 중 두 가지 회피지향성 즉 수행회피와 숙달회피만이 진로결정 수준과 부적인 상관을 보였고 특성불안 상태불안 모두 진로결정수준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으므로 이 결과와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회피지향성과 진로결정수준 사이에서 불안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회피지향성(수행회피, 숙달회피)과 진로결정수준 사이의 관계에서 불안은 완전매개를 보였다. 즉, 회피지향성은 불안에 영향을 미치고, 불안은 다시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주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학습에 대한 동기인 성취목표지향성 중 수행회피와 숙달회피는 불안을 높이고 불안은 진로결정수준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 이는 두 가지 회피지향성의 특징인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불안이 야기되는 것으로 보인다. 또 불안은 인지과정을 방해하고 적극성을 약화시키게 되어(Maher, 1996) 진로결정수준을 낮추게 되는 것이다. 이는 청소년의 학습에 대한 동기가 정서 뿐 아니라 발달과제인 진로결정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됨을 의미한다. 청소년이 어떤 성취 목표지향성을 보이는지, 즉 학업에 어떤 목적으로 임하는지 여부는 청소년의 불안과 진로결정수준을 이해할 수 있는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이 연구의 주요한 기여 중 하나는 동기요인(성취목표지향성)과 정서요인(불안), 그리고 행동요인(진로결정수준)을 연결했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불안과 진로결정수준 간의 관계를 밝히는 연구가 주로 수행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불안의 원인을 밝히는 것에 주목하였다. 낮은 진로결정수준을 보이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로상담을 진행할 때 정서적 불안뿐 아니라 학습에 대한 동기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함을 밝혀 진로상담에 대한 개입 방향을 새로 조명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학업에 대한 동기인 성취목표지향성이 진로결정수준을 저하시키는 불안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결과는 생활에서 학업에 대한 비중이 큰 우리나라 청소년에게 더욱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어떤 이유로 학업에 임하느냐 여부가 정서와 진로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성취목표지향성과 같은 학업과 관련된 심리적 변인이 청소년의 심리적 특성에 폭넓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참 고 문 헌

- 고향자(1992). 한국 대학생의 의사결정 유형과 진로결정수준의 분석 및 진로결정 상담의 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봉환(1997).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의 발달 및 2차원적유형화.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봉환 · 정철영 · 김병석(2006). 학교진로상담. 서울: 학지사.
- 김아영 · 이주화(2005). 학업적 성취목표지향성 척도개발. 교육심리연구, 제19권, pp. 311-325.
- 김관환(1997). 진로상담 프로그램의 실시방법과 불안 및 자존감이 대학생의 진로의사 결정 능력에 미치는 효과.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현수 · 장기면 · 이난(2004). 진로탐색 프로그램의 적용이 대학생의 진로 및 자아정체감과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효과. 한국교육심리학회, 제18권 제1호, pp. 261-278.
- 문승태 · 김연희(2002). 고등학생들의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농업교육학회지, 제34권 제2호, pp. 49-60.
- 박선영(2005). 2×2 성취목표지향성과 성격 및 학업 성취간의 관계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종원(2002). 진로미결정성 척도 개발.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성미송(2005). Elliot과 McGregor의 2×2 성취목표구조 모형의 타당화 연구.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유지선(2004). 여대생의 진로미결정과 애착 및 자기효능감의 관계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정윤경(2000). 고등학생의 진로결정 유형 이해를 위한 탐색적 연구. 직업능력개발원, 제3권 제1호, pp. 143-163.
- 정윤경(2002). 고등학생의 진로결정에 관한 구조방정식모형의 구축. 직업능력개발연구, 제5권 제2호, pp. 147-172.
- 조애리(1999).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 및 진로탐색행동과 성격 5요인과의 관계.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덕웅 · 이창호 · 탁진국(1993). Spielberger 상태-특성 불안검사의 표준화. 학생지도연구

- 구, 제10권 제1호, pp. 214-222.
- 홍세희(2000). 특별기고: 구조 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 심리학회지: 임상*, 제19권 제1호, pp. 161-177.
- 서울대학교 대학생활 문화원(2002). 2002 신입생 특성 조사.
<http://snucounsel.snu.ac.kr/>(검색일: 2007. 8. 30)
- 연세대학교 상담센터(2007). 2007년 신입생 실태조사.
<http://www3.yonsei.ac.kr:8888/counsel>.(검색일: 2007. 8. 30)
- 조선닷컴(2009). 한국청소년, OECD평균에 15시간 더 공부.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08/06/2009080600206.html (검색일: 2009. 10. 30)
-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07). 7차 교육과정.
http://www.kice.re.kr/ko/board/list.do?cPage=6&menu_id=10134 (검색일: 2009. 8. 21)
- Ames, C.(1992). Classroom: Goals, structure, and student motivatio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 84 No.3, pp. 261-271.
- Browne, W., and Cudeck, R.(1993).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In K. A. Bollen and J. S. Long(Eds.),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Sage, Thousand Oaks, CA.
- Chartrand, J. M., Robbins, S. B., Morrill, W. H., and Boggs, K.(1990).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Career Factors Inventor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Vol. 37, pp. 491-501.
- Crites, J. O.(1981). *Career Counseling: Models, methods and materials*. New York: McGraw-Hill.
- Dweck, C. S.(1986). Motivational process affecting learning. *American Psychologist*, Vol. 41, pp. 1040-1048.
- Elliot, A. J., and McGregor, H. A.(2001). A 2 × 2 achievement goal framework.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80 No. 3, pp. 501-519.
- Elliot, A. J., and Thrash, T. H.(2002). Approach-avoidance motivation in personality: Approach and avoidance temperaments and goal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82, pp. 804-818.

- Emmons, R. A.(1996). *Striving and feeling: Personal goals and subjective well-being*. In P. M. Gollwitzer, and J. A. Bargh (Eds.), *The psychology of action: Linking cognition and motivation to behavior* (313-337). New York: Guilford Press.
- Fuqua, D. R., and Hartman, B. W.(1983). Differential diagnosis and treatment of career indecision. *Personal and Guidance Journal*, Vol. 62, pp. 27-29.
- Fuqua, D. R., Newman, J. L., and Searwotr, T. B.(1988). Relation of state and trait anxiety to different components of career indecis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Vol. 35 No. 2, pp. 154-158.
- Greenhaus, J. H., and Sklarew, N. D. (1981). Some sources and consequences of career explorat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Vol. 18, pp. 1-12.
- Hartman, B. W., and Fuqua, D. R.(1982). The construct validity of the Career Decision Scale adapted for college students, *Vocational Guidance Quarterly*, Vol. 31, pp. 69-77.
- Hawkins, A.(2004). *The impact of co-operative education participation to career indecision,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decision-making rational style among college students*. Doctoral Dissertation, Temple University.
- Heppner, M. J., and Hendricks, F.(1995). A process and outcome study examining career indecision and decisiveness.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Vol. 73, pp. 426-437.
- Holland, J. L., and Holland, J. E.(1977). Vocational indecision: more evidence and speculat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Vol. 24, pp. 404-414.
- Larson, L. M., Heppner, P. P., and Dugan, K.(1988). Investigation multiple subtypes of career indecision through cluster analysi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Vol. 35 No. 4, pp. 439-446.
- Lent, R. W., Brown, S. D., and Larkin, K. C.(1986). Self-efficacy in the prediction of academic performance and perceived career option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Vol. 33, pp. 265-269.
- Maher, B. A.(1996). *Principles of psychotherapy: An experimental approach*. New

- York: McGraw-Hill.
- Meece, J. L., Blumenfeld, P. C., and Hoyle, R. H.(1988). Students' goal orientations and cognitive engagement in classroom activitie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 80, pp. 514-523.
- Newman, J. L., Gray, E. A., and Fuqua, D. R.(1999). The relation of career indecision to personality dimension of California Inventory.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Vol. 54, pp. 174-187.
- O'Hare, M. M., and Tamburri, E.(1986). Coping as moderator of the relation between anxiety and career decision making.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Vol. 33, pp. 255-264.
- Osipow, S.(1994). The use of the Career Decision Scale in career assessment.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Vol. 4 No. 2, pp. 117-130.
- Osipow, S. H., Carney, C. G., Winer, J., Yanico, B., and Koschier, M. (1980). *The career Decision Scale* (3rd rev) Columbus, OH: Marsthon Consulting and Press.
- Pintrich, P. R., and Schunk, D. H.(2002). *Motivation in education: Theory, research, and application*. NJ: Merrill Prentice Hall.
- Russell, D. W., Kahn, J. H., Spoth, R., and Altmaier, E. M.(1998). Analyzing data from experimental studies: A latent variabl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pproach. *Journal of Counselling Psychology*, Vol. 45, pp. 18-29.
- Sideridis, G. D.(2005). Goal Orientation, Academic Achievement, and Depression: Evidence in Favor of a Revised Goal Theory Framework.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 97 No. 3, pp. 366-375.
- Spielberger, C. D.(1972). *Anxiety as an emotional state*. In C. D. Spielberger(Ed), *Anxiety : Current Trends in Theory and Research*. 1. New York: Academic Press.
- Spielberger, C. D., Gorshuch, R. L., and Lushene, R. E.(1970). *The State-Trait Anxiety Inventory Manual*. Palo Alto, California: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 Walsh, W. B., and Osipow, S. H.(1988). *Career Decision Making*.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ABSTRACT

The Effects of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and Anxiety Levels on the Career Decision Levels in Adolescents

Yoon, Seon-Hee* · Lee, Gue-Min**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four sub-elements of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performance approach, performance avoidance, the mastery approach and mastery avoidance) and anxiety levels as they relate to career decision levels in adolescents. Four-hundred sixty-three 10th and 11th graders completed self-report questionnaires in class. The issues of performance approach, performance avoidance and mastery avoidance were positively correlated with trait anxiety and state anxiety, while the mastery approach was negatively correlated with state anxiety and trait anxiety. Performance avoidance and mastery avoidance were negatively correlated with career decision levels. State and trait anxiety levels were negatively correlated with career decision levels. It was found that such sub-factors of avoidance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as performance avoidance and mastery avoidance tended to affect adolescent's anxiety level negatively which, in turn, has a negative impact upon their career decision levels. Significantly, anxiety was revealed as a full mediating effect between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and career decision levels.

Key Words : career decision level,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anxiety

투고일 : 9월 11일, 심사일 : 10월 16일, 심사완료일 : 11월 16일

* Researcher at Korean Psychological Testing Institute +82-10-2316-6291

** Professor of education at Yonsei University +82-2-2123-3183

